

# 高句麗 古墳壁畫 紋樣과 針線小品 개발에 관한 연구:

## 집안지역 고구려 고분을 중심으로

이미석\* · 김정호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본 연구는 침선소품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로서 집안지역의 고구려 고분벽화속에 나타난 다양한 문양들을 침선소품에 응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의 이미지와 현대적 감각을 살린 독창적인 소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안지역의 고분벽화의 내용을 보면 각저총, 무용총, 장천1호분은 생활풍속을, 삼실총은 생활풍속과 사신(四神) 그리고 오회분4·5호묘에는 사신(四神)을 주제로 하고 있었으며, 벽화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미는 현대적 문양의 모티브를 제공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집안지역 고분벽화에 나타난 문양을 고분별로 살펴본후, 고구려의 문화와 문양의 조형성을 알리면서 현대적으로 응용하기 적합한 문양을 선정하여 도식화 하였다. 선정된 문양은 나무문3점, 인동당초문과 삼족오(三足烏)1점, 삼족오(三足烏)1점, 두꺼비1점, 구름문2점, 연꽃문1

점, 불문1점, 인물문3점, 거문고타는 선인(仙人)1점, 수레바퀴 신(神) 1점 으로 총 15점이다.

셋째, 각각의 소품에 대하여 디자인 계획을 세운후 색상별로 전통염색을 하였으며 실제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침선소품으로 개발한 작품으로는 가방, 동전지갑, 명함집, 카드집, 수저집, 안경집, 주머니, 러너&매트, 컵받침, 쿠션&방석, 스카프 등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소품을 위주로 총 26여점을 실물 제작하였다.

한 나라의 이미지와 상품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상품은 그 나라의 가치관이나 문화 등의 정서를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전통문양과 침선소품의 접목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만이 아닌 전통의 재창조인 것이다.

각 분야에서 코리아니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적인 것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되는 시점에서 고구려의 벽화문양과 침선소품의 접목에 관한 연구는 전통의 재창조와 더불어 현대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